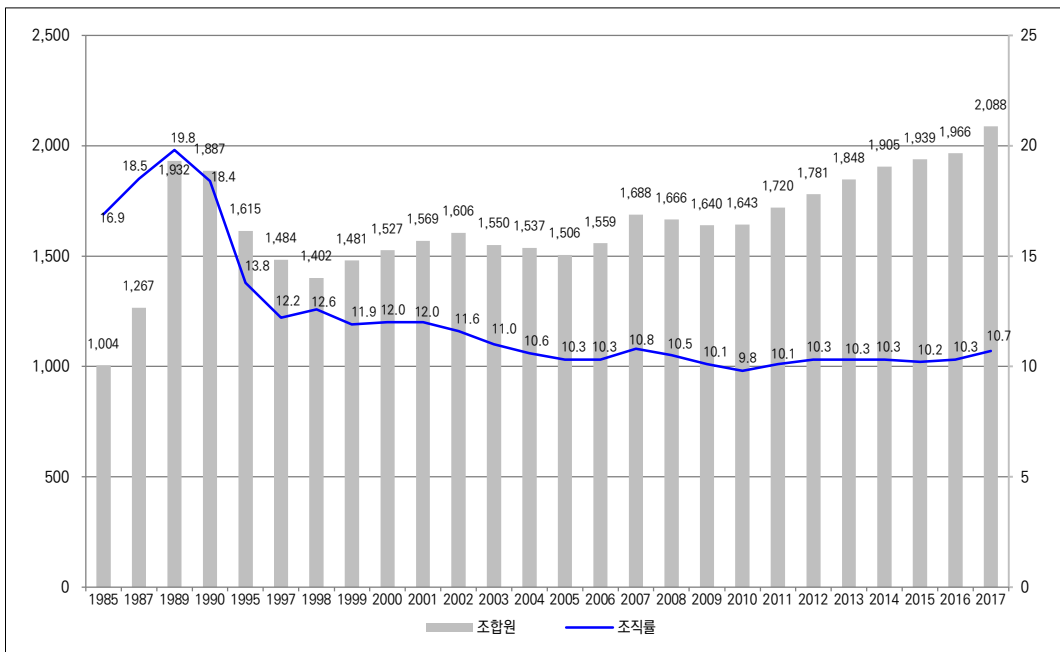


증가세가 확연한 노동조합원 수

- 2018년 12월 발표된 201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원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조직률도 10.7%로 높아짐.
- －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9년 19.8%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조합원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0년 9.8%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음. 이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등을 계기로 10%대를 회복하여 수년간 10.3% 내외 수준에 머물다가 2017년 0.4%p나 높아진 것임.

[그림 1] 노동조합 조합원 수 및 조직률 추이

(단위: 천 명, %)



주: 1) 노동조합 조직률은 고용노동부의 산정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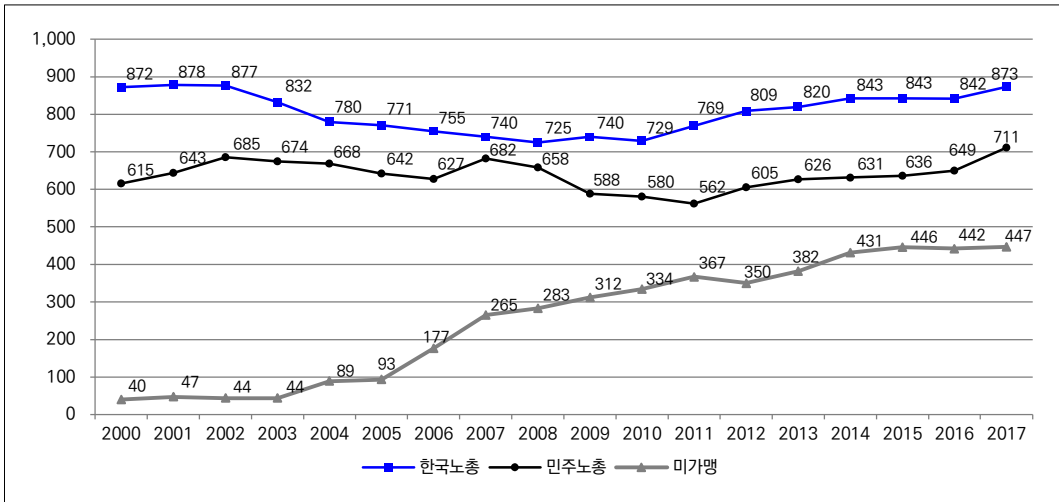
조직률 = 전체 조합원 수 ÷ 조직대상 근로자(임금근로자 - 노조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 100

자료: 고용노동부(2018), 「2017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내용을 재구성함.

- 조합원 수는 노동자대투쟁 이전 1985년 1,004천 명에서 배 이상인 1,084천 명이 증가하여 2,088천 명에 달하였음.¹⁾
- 상급단체별로는 미가맹보다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 증가가 뚜렷하였으며, 특히 민주노총의 증가폭이 컸음.
 -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한국노총이 31,206명(3.7%), 민주노총이 61,816명(9.5%),²⁾ 미가맹이 4,294명(1.0%) 증가함.
 - 미가맹 조합원 수는 2006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2015년 이후 주춤한 상태임.³⁾
 - 2017년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4만 7천 명을 내년 조사에 포함할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그림 2]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2017년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300명 이상 사업체에서 57.3%, 30명 미만은 0.2%를 차지하여 규모별 격차가 현저하였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더욱 심화된 현상임.

1) 2018년 설립신고증이 나온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9만여 명 중 옛 법원공무원노조(9천 명)와 옛 민주공무원노조(3만 4천 명) 조합원들만 2017년 조직현황에 반영되어 나머지 법외노조로 분류된 4만 7천여 명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전국교직원연합 5만 명 등을 더하면 그 수는 2,185천 명이 됨(매일노동뉴스 2018. 12. 21.자).

2) 2017년 민주노총은 70만의 조합원을 처음으로 확보하였으며, 2018년 1월 기준 786,563명으로 집계되었음.

3) 양대 노총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미가맹 노조는 2005년 93천 명, 2006년 177천 명, 2015년 446천 명까지 증가하였고, 전체 조합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2%에서 2015년 22.6%로 증가함.

- 매년 임금노동자는 증가하고 30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임금근로자 수의 55% 이상을 차지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0.1~0.2% 수준을 보이고 있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1~12% 수준이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업 단위로 조직되지 않는 노조의 경우 조사방식의 한계로 인해 사업체 규모별로 분류되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해대변이 필요한 열악한 사업체일수록 오히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그 경향이 강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음.

〈표 1〉 사업체 규모별 조직 추이(임금근로자 수, 조합원 수, 조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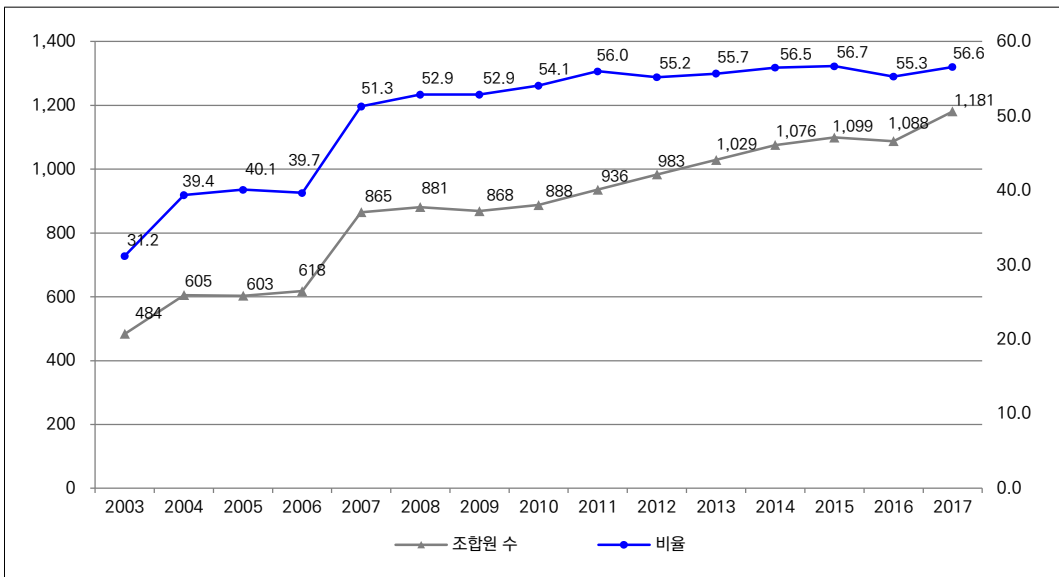
(단위: 명, %)

	30인 미만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2008	9,395,551	3,078,405	1,543,976	1,829,236
	20,473	94,605	210,342	831,048
	(0.2)	(3.1)	(13.6)	(45.4)
2013	10,884,000	3,581,000	1,754,000	2,195,000
	105,558	72,259	151,254	1,046,683
	(0.1)	(2.0)	(8.6)	(47.7)
2017	11,568,000	3,927,000	2,057,000	2,466,000
	26,909	136,537	307,146	1,413,654
	(0.2)	(3.5)	(14.9)	(57.3)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그림 3〉 초기업단위 노조 조합원 수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내용을 재구성함.

- 초기업단위 노조 조합원 수는 2017년 1,181,533명으로 2016년 대비 93,183명(8.6%) 증가, 비중은 55.3%에서 56.6%로 높아졌고 기업별 노조는 907,007명으로 28,476명(3.2%)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44.7%에서 43.4%로 낮아졌음.
 - 전체 조합원 수 증가 추이와 더불어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 및 비중은 2007년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⁴⁾ 이후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초기업단위 노조 조합원 수는 2017년 591,060명으로 2016년 대비 55,028명 증가, 초기업화비율은 83.1%로 0.5%p 높아졌고, 한국노총은 13,846명 증가, 초기업화 비율은 45.8%로 전년과 동일한 비율이었음.
 - 이 같은 조직 구성의 변화는 전통적인 기업별 교섭 체제를 넘어, 임금·고용·복지와 산업정책 등 측면에서 초기업적인 정책협의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근 SK하이닉스, 포스코, 안랩 등의 노조설립은 향후 노동조합 조직률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반영한 정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노조가입이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2018년 SK하이닉스, 포스코는 물론, 안랩, 카카오, 넥슨, 네이버 등 IT 부문에까지 미친 노동조합의 설립 붐은 향후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됨. **KL**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

4) 초기업별 노조조합원 비중은 2003년 31.2%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민주노총 소속 '14만 금속 노조'가 출범한 2007년부터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음(매일노동뉴스 2011. 11. 17.자).